2019.10.31(목)

두 달 전에 주문제작한 슈퍼커브 커스텀이 내일 도착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전화를 했을 때 2주 정도 더 걸린다고 했다. 정말 어린이처럼 두 달을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진심으로 온맘다해 실망스러웠다. 이러한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나의 첫 실패노트를 시작한다.

두 달 전에 슈퍼커브 커스텀 주문제작을 29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. 그래놓고 두 달 내내 너무 기대를 한 나머지 2주가 더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다. 그래서 이 실패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. 여러 문제가 있었다.

첫 번째로 계약서나 계약기간 등이 전혀 없이 전화통화 하나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.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내에 배송이 안 될 시에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더 책임감있게 거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다. 만약 이게 사기였다면 나는 멍청하게 사기를 당했을 것이다.

두 번째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겠다. 이 거래를 하고 두 달이 넘게 오토바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개발공부에 지장이 없지 않았다. 나에게 이것은 순수한 기대감인 동시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일에 distraction이었다. 이 실패를 통해 다시는 이런 느낌의, 형태의 부실한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.

오늘을 시작으로 내 친구 형관이한테 추천받은 실패 노트를 주기적으로 써서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다. 이 기록이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실패에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.